

광주은행 여자 실업 양궁단 '국가대표급' 선수단 갖췄다

최미선·김민서·박나운 입단 ...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 내년 합류
김성은 초대 감독 선임 ... 송중욱 행장 "광주를 세계양궁의 메카로"

양궁단 창단식 18일에 열려

광주은행이 '국가대표급' 여자 실업 양궁단을 꾸렸다.

이미 입단을 결정한 '한국 양궁 간판' 안산 외에 최미선, 김민서, 박나운이 승선했다.

광주은행은 15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여자 실업 양궁단 입단식을 열었다.

양궁단 창단식은 광주은행 창립 54주년 기념행사 사가 열리는 오는 18일 진행된다.

광주-전남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팀을 제외하고 기업이 양궁단을 창단하는 것은 처음이다.

광주은행은 김성은 광주여자대학교 양궁팀 감독을 초대 감독 및 창단 실무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고 지난 7월부터 창단을 준비했다.

김 감독은 광주여자대 출신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최미선, 안산을 배출한 명장이다.

김 감독과 안산, 최미선, 김민서, 박나운 선수가 입단을 확정하면서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팀이 꾸려졌다.

광주은행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산(광주여자대 초등특수교육과 3년)은 내년 말 졸업을 앞두고 광주은행 유니폼을 입는다.

현재 국가대표인 안산은 '2020 도쿄올림픽' 3관

왕에 이어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관왕을 차지했고 지난 5월 광주 '2022 양궁월드컵'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근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2022 현대 양궁월드컵 4차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최미선 역시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2022 양궁월드컵' 개인, 단체전 금메달, '2019 유니버시아드 대회' 단체전 금메달, '2019 아시아 선수권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민서, 박나운도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은행 양궁단은 광주여자대 양궁장에서 훈련한다. 오는 18일 열리는 창단식에서는 팀명을 선포하고 광주를 '세계 제1의 양궁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알릴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광주에서 열리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 대표은행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입단식에서 약속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여자 양궁단 창단은 광주를 세계 최고의 양궁 메카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광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우리 고장 출신 스포츠 스타를 다른 지역에 보내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성장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 이



광주은행 양궁단이 15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은행 본점에서 선수 입단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성은(왼쪽부터) 감독, 김민서·안산, 송중욱 광주은행장, 최미선·박나운, 조계준 부행장.

라는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 양궁단 창단으로 지역 학교팀과 실업

팀간 선수 연계육성 시너지를 끌어내 양궁 꿈나무를 육성하겠다"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확산 등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남자 배드민턴 실업팀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유럽파 합류 ... 벤투호, 현지 첫 훈련

리닝 등 회복훈련에 중점

"날씨·잔디 등 환경에 빨리 적응"

축구 국가대표팀이 역대 두 번째 '월드컵 16강' 도전을 무대가 될 카타르에서 첫 훈련에 돌입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표팀은 14일 오후(현지시간)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카타르 입성 후 첫 담금질에 나섰다.

현지시간 14일 오전 4시 45분께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에 착륙한 지 약 12시간이 지난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훈련을 진행했다.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 모인 인원에 유럽파 황의조(울림피아코스), 이강인(마요르카),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소속팀이 있던 지역에서 카타르로 바로 이동해 이날 가세하면서 21명이 됐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벤투 감독이 추가 발탁한 '예비 선수' 오현규(수원)를 포함하면 현재 도하에 집결한 선수는 22명이다.

다만 이날 이른 새벽 영국에서 입국한 황희찬은 왼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이 좋지 않아 팀 훈련에선 제외, 훈련장에는 21명이 나왔다.

대표팀 관계자는 "황희찬에게 큰 문제나 부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선수가 불편함을 느껴서 실내에 남아 회복과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간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려 국내 훈련에서도 대부분 팀과 별도로 운동을 소화했던 김진수(전북)는 이날 팀과 함께 그라운드에 나섰다.

김진수는 훈련의 모든 과정을 동료들과 똑같이 수행하진 않았으나 부상 부위에 태어핀한 가운데서도 달리기와 일부 볼 터치 훈련 등에 동참했다. 달릴 때는 크게 불편함을 나타내지는 않는 모습이였다.

다른 선수들은 특별한 문제 없이 팀 훈련을 소화했다. 장거리 비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첫 훈련이라 사이클과 조깅 등 회복을 위한 운동이 주를 이뤘다.

막바지엔 필드 플레이어들은 두 조로 나눠 패스 게임을, 골키퍼들은 손으로 공을 넘기는 훈련 등을 이어갔다.

이날 대표팀이 훈련한 오후 5시의 도하는 해가 이미 저어두워졌다. 훈련장 뒤편에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조명이 또렷하게 빛나는 것이 보인다. 기온은 여전히 30도에 가까웠으나 해가 진 뒤엔 선선한 바람이 더해지며 '중동의 불볕더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표팀 공격수 황의조(울림피아코스)는 "날씨가 잔디 상태, 환경에 선수들이 빨리 적응해야 할 것 같다. 경기까지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벤투호는 16일에도 이날과 같은 시간대에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첫 현지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타르 오후 5시면 선선... '더위 변수' 없을 듯

H조 경기 오후 4시·6시에 시작
사실상 야간 경기로 열려

현지시간으로 닷새 뒤인 20일 막을 올리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중동 지역에서 개최되며, 또한 처음으로 '겨울'에 열리는 대회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

개최국으로 선정된 카타르가 여름엔 낮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는 등 축구 경기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통상 월드컵이 열리는 6~7월이 아닌 11월에 최초로 개막해 12월까지 진행된다.

계절의 이름은 '겨울'이지만 그제 '중동의 겨울'이라면 더위에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카타르에 입성한 14일 현지 날씨를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다.

물론 요즘도 한낮이면 도하는 기온이 섭씨 30도를 훌쩍 넘기고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전형적인 '여름 날씨'다.

하지만 오후 5시께만 되면 해가 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 벤투호가 입성 이후 도하 인근 알리안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처음으로 담금질에 나선 14일 오후 5시(현지시간) 그라운드 위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대표팀이 훈련하는 그라운드 뒤편 여러 곳의 고층 빌딩이 눈에 띄는데, 건물들을 수놓은 조명이 뽀얗게 빛나는 화려한 빛을 고스란히 볼 수 있을 정도다.

훈련이 진행된 오후 5~6시대 기온은 섭씨 20도 후반대 정도로 나타났으나 이미 해가 떨어지는데다 선선한 바람이 적잖이 이어져 긴 소매 옷을 입은 이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조별리그 내내 머물며 담금질하는 알에글라 훈련장은 조별리그 3경기가 모두 열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과 가까워 이 시간대 훈련은 대표팀에는 저절로 '경기 날씨' 적응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 우루과이와의 H조 1차전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오후 4시, 28일 가나와의 2차전도 마찬가지로 오후 4시, 포르투갈과의 3차전은 다음 달 2일 오후 6시에 개최된다.

첫날 훈련 때의 상황을 조별리그 경기에 대입한다면 1~2차전의 경우 시작할 때는 햇볕이 남아있더라도 후반전이 되면 '야간 경기'를 치르게 되고, 3차전은 아예 여름 속에서 시작하게 된다.

카타르가 자랑하는 경기장 내 에어컨이 없어도 경기를 치를 수 있을 만한 정도라 '더위 변수'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팀은 현지에서 매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4시)나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11시)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2차전 상대 가나, 주축 골키퍼 2명 부상 낙마

골문 불안 공격 포인트 될 듯

주축 골키퍼들의 부상으로서 가나의 뒷문이 열거워졌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나를 필승 제물로 바라보는 벤투호로서는 호재다.

오토 아도(가나) 감독이 이끄는 가나는 14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26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가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파울루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과는 오는 28일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맞붙는다.

가나 대표팀에는 공격수 이냐키 윌리엄스(아틀레틱 빌바오)와 수비수 타리크 램프티(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등 귀화 선수들도 예상대로 포함됐다.

논여겨볼 대목은 골키퍼다. 아도 감독은 골키퍼 자리를 로런스 아타-지(장크트갈렌), 압둘 마나프 누루딘(외젠), 이브라힘 단라드(아산테 코토코)로 채웠다.

그동안 가나 대표팀 골문을 지켜온 조 윌러트(찰턴 애슬레틱)과 리처드 오포리(올랜드 파이리츠)는 명단에 없다.

15일 AP통신에 따르면 윌러트는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소속인 찰턴에서 경기를 준비하다 손가락을 다쳤고, 오포리는 무릎 부상으로 카타르행이 불발됐다.

올해 26세의 윌러트는 지난해 11월 가나 국가대

표 데뷔전을 치렀지만 이후 1년 사이에 A매치 11경기를 뒀던 만큼 빠르게 주전 골키퍼로 자리매김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가나 골키퍼 중 첫 번째 선택이 될 가능성이 컸다.

A매치 22경기를 소화한 29세의 오포리는 2020년 하반기 부상으로 한동안 대표팀에 뽑히지 못하며 윌러트에게 주전 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지난 9월 A매치 때 그라운드로 복귀했고, 니카라과와 원정 평가전(가나 1-0 승)에서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윌러트와 오포리가 함께 낙마하면서 이번 월드컵에서 가나 골문 앞에는 아타-지기가 설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명단에 든 세 명의 골키퍼 중 1996년생인 아타-지기가 A매치 출전 경기 수가 가장 많다. 2018년 국가대표로 데뷔한 아타-지기는 A매치 9경기를 뒀었다.

23세의 누르딘은 이제 A매치 2경기를 치렀을 뿐이고, 그동안 대표팀의 3순위 골키퍼로 경험을 쌓아가는 중이던 19세의 단라드는 아직 국가대표로 출전한 경험이 없다.

그러나 아타-지기는 지난 6월 일본에서 치른 일본과 친선경기(가나 1-4 패)에서 네 골이나 내주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비록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포르투갈과 1차전을 치르고 난 뒤 한국과 만나긴 하지만, 가나의 골문 불안은 벤투호에는 주요 공략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